

일본, 지방창생특구 지정

- 일본정부는 '14년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한데 이어 '15.3월에 지역단위로 규제개혁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창생특구」를 지정
- 「지방창생특구」는 국가전략특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구 오너스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

□ 지방창생특구 지정

- 일본정부는 '15.3.19일 제13차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창생(創生)특구」 3개 지역을 지정 발표
 - 센보쿠시(아키타현)는 외국 환자 유치에 위한 「의료관광」 특구로 외국인 의사 수용 요건 완화, 무인항공기(드론; drone)의 실증실험을 추진
 - 센다이시(미야기현)는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이치현은 학교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
 - 아베 총리는 “암반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3개 지역에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
- * '15년도 지방창생 관련 예산 약 3조엔 계상

< 「지방창생」 관련 추진 상황 >

2014	5.8	지식인 정책제언기구인 「일본창성회의」에서 30년 후 소멸 가능성 있는 지방도시 896개를 발표
	6.24	내각부: 50년 후 인구 1억 명 유지 목표 설정
	9.3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설립
	11.21	마을·사람·일 창생법, 지역재생법 개정법안 제정
	11.26	자민당: 「지방창생특구」설치 공약 발표
	12.19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 「지방창생특구」창설 방침 제시
	12.27	지방창생을 위한 종합전략과 장기비전 각의 결정
2015	1.14	2014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정대강각의 결정
	1.22	지역재생계획 인정 (지역재생 개정 법안에 의거)
	2.3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3.19	지방창생특구 지정
	4월 이후	2015년도 예산편성

자료 : 미즈호종합연구소(2015.3.20.)

- 민간의원들은 의료간병 분야의 규제개혁을 제안한 도쿠시마현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 민간의원들은 제안된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히 제3차 특구 지정을 해 줄 것을 요구

< 지방창생특구 지정 기준 >	
①	특구 내의 경제·사회적 효과
②	국가전략특구 이상의 파급 효과
③	프로젝트의 선진성, 혁신성 등
④	지자체의 의욕·실행력
④-1:	국가전략특구에서 개혁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추진력
④-2:	추가 규제개혁 항목의 적극적 추진
④-3:	미래기술에 관한 실증실험의 적극적 추진
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⑥	인프라환경 정비 상황

① 센보쿠시(이키타현) : 국유림의 민간 해방 특구

- 48개 지자체와 109개 기업에서 206개의 사업 제안이 제출되었으나, 이 중 아키타현 센보쿠시의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온천 의료 관광을 확대
- 소규모 진료소도 외국인 의사의 진료를 허가하여 부족한 의사문제를 해소
- 국유림에서 무인항공기의 실증실험을 제안,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
- 60%를 차지하는 국유림의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임업 사업자, 음식 관련 사업자들에게 대여·사용을 촉진
- 무인항공기를 조난 구조, 화산 감시, 조수(鳥獸) 피해 대책을 위한 농림축산 분야 조사 등에 활용이 가능한지 실증실험을 실시

② 센다이시(미야기현) : 소셜·이노베이션 창생 특구

- 센다이시는 전략특구를 활용 창업을 촉진, 특히 여성과 젊은이·시니어가 주도하는 소셜·이노베이션(사회 혁신)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재해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
- 규제개혁의 핵심은 NPO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현재 서류 심사에 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특구에서는 2주일 정도로 단축
- 기업 설립 절차를 윈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공중 사무소 외에서도 정관인증 절차를 가능하게 함

- 센다이시가 소재한 도호쿠 지방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창업 마인드가 자신의 능력 활용보다는 지역과 타인을 위해 공헌하고 싶은 것으로 변화
- 한정된 지역에서 일하는 보육사(保育士) 자격인 「지역한정 보육사(가칭)」의 도입이나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도시 공원 내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규제완화도 제안
- 도호쿠대학과 연계, 자동주행 등 미래 기술의 실증을 통해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추진

③ 아이치현 : 모노즈쿠리·농업의 산업 강화 특구

- 아이치현은 자동차·항공우주산업 등 일본 최대의 모노즈쿠리 집적지로서 교육·고용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인재육성이나 차세대 기술의 실증을 통해 성장산업·첨단기술의 중핵 거점 구축
 - 특구를 활용 ‘16년에 개교하는 「현립 아이치종합공과고등학교 전공과」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제조업 인재를 육성하는 구상을 제시
 - 아이치현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나고야대학이 있어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음
- 농업분야도 농지의 유통화, 경작 포기지의 해소 등을 도모함으로써 제1차 산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제도 개혁을 실현
- 또한 중부국제공항을 활용, 교류 인구의 증가에 기여하고, 도쿄·간사이권을 연결하는 리니어중앙신칸센의 공사를 시작하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

□ 시사점

- 지방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
- 아베노믹스를 추진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 효과가 여전히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14.3월에 지정된 6개 지역의 국가전략특구는 13번 구역회의를 개최, 분과회의 설

치 등도 추진

-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지만 개혁 속도가 더딘 지역도 있으므로 자문회의는 6개 특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특구지정 취소 등을 포함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
 - * '14.11월 중의원선거로 내각이 해산되어 「국가전략특구법 개정법안」이 폐기, 추가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경제의 활성화, 내수경제 회복 등이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특성을 활용한 특구의 지정과 규제개혁의 추진은 한일이 처한 공통 정책과제임
 - 일본 지방창생특구의 성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지방경제의 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 특구의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특구에 의한 지방의 경제효과가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제13차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배부자료(2015.3.19), 닛케이신문(2015.3.19), 산케이신문(2015.3.19), 요미우리신문(2015.3.19)

[참고]

< 각 지방창생특구의 방침 >

「농림·의료관광」을 위한 개혁 거점		
센보쿠시 (아기타현)	정책 과 제	(1) 국유림의 민간 개방에 의한 유효 활용
		(2) 의사 부족문제 해소와 의료 체제의 충실
		(3) 경작 포기지 등의 생산 농지 전환·재생
		(4)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거점의 개발
		(5) 지역의 안전 대책 및 제1차 산업에 대한 무인항공기의 활용
	규 제 개 혁	- 국유림의 대여에 관한 대상자·면적 확대
		-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환경, 경영 환경의 정비
- 인재 부족과 경작 포기지 해소를 위한 농업 분야의 제도 정비		
「여성 활약·사회 개혁」을 위한 개혁 거점		
센다이시 (미야기현)	정책 과 제	(1) 여성, 젊은이, 시니어 등을 중시한 의욕 있는 창업가 배출
		(2) 주식회사나 NPO법인 등의 창업 절차의 간소화
		(3) 창업가·벤처기업의 경영 안정화·고용의 확대
		(4) 보육사 확보, 대기아동 해소 등에 의한 여성의 사회 참가 확대
		(5) 피해 대응·산업 부흥을 위한 차세대 이동체 시스템의 실증 촉진
	규 제 개 혁	- 지정도시에서 지역한정 보육사 시험의 실시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도시 공원 내에 보육 시설 설치
- NPO법인의 설립 인증 신청의 심사 기간을 단축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고용·농업 등의 종합개혁 거점		
아이치현	정책 과 제	(1) 공립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제공에 의한 산업인재 육성
		(2) 농업의 소득 향상과 성장분야로 전환
		(3) 선진 의료 확대
		(4) 외국인도 포함한 최적 고용 환경을 정비
		(5) 성장산업·첨단기술의 중핵 거점 형성
	규 제 개 혁	- 고급 모노즈쿠리·산업인재 육성·확보
		- 농지의 집약·집적, 경작 포기지의 해소
		-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 영농사업자의 경영 기반 강화
		- 6차 산업화의 추진
-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고용 조건의 정비		
-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체류 자격 재검토		
- 고도의 첨단 의료 제공		
- 유료 도로 관리업주의 민간 개방		
- 자동주행 등 미래기술 실증을 위한 제도 정비		

< 국가전략특구 규제개혁 사항 >

일본경제재생본부 결정 (2013.10.18)	
- 국제의료 거점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 외국인 간호사의 업무 해금(일부)	
- 보험 외 병상 요양 확충	
- 고용 조건의 명확화	
-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 개방(공설민영학교의 설치)	
- 농업위원회와 지자체의 사무 분담	
- 농업생산법인의 6차 산업화 추진 등을 위한 요건 완화	
- 농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의 적용	
- 농가 레스토랑의 농용지구 역내 설치 용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 추가 결정 (2014.10.10)	
- 공증인의 공증 사무소 외에서의 정관인증	
- 「지역한정 보육사(가칭)」의 창설(지정도시에 의한 해당 보육사 시험 실시를 포함)	
- NPO법인의 설립 절차의 신속화	
- 국유림의 민간 대여·사용 확대	
- 도시 공원 내에서 보육시설 설치 해금	
- 외국인 의사의 진료 범위 확충	

< 국가전략특구 개요 >

지역	주제	규제개혁 내용
도쿄권 (도쿄도 9구, 가나가와현, 치바현 나리타시)	국제 비즈니스 추진	-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정비 - 외국인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 제공 - 글로벌 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 -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류자격 재검토 - 외국인 전용 의료서비스 제공
간사이권 (오사가부, 효고현, 교토부)	의료 이노베이션	-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제공 -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개발 - 벤처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 - 국제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인재 육성
니이가타시 (니이가타현)	대규모 농업 개혁	- 농지의 집약·집적, 경작포기농지 해소 - 영농인 경영기반 강화 - 농업 벤처의 창업 지원
효고현 야부시	중 산간지 농업 개혁	- 경작포기농지 등의 재활용 - 농산물,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교류자 체류형 시설 정비
후쿠오카시 (후쿠오카현)	창업을 위한 고용 개혁	- 벤처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 -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류자격 재검토 - 외국인 전용 의료서비스 제공
오키나와현	국제 관광 거점	-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용이화 - 입국 절차의 신속화 - 외국인 다이버 수용 - 해외 고급인재 수용

자료 :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 자료에서 정리